

[탄원서]

성명: 故 김태관(1967.11.19. 출생, 2019.8.6. 사망)

소속: 울릉도 저동초등학교

상기 고인은 1990년 7월 1일 울릉도 모 초등학교 시설관리직으로 임용되어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묵묵히 일해 오다 2019.8.6.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상륙으로 학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시설물 취약지구 특별 안전점검 중 학교에서 근무 중 심정지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고인은 29년을 공직생활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남다른 업무 추진으로 재해 및 취약시설 사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상륙으로 학교 및 학생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교 주변 시설물 취약 시설 점검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기온으로 아외 외부작업을 하던 고인에게는 높은 기온이 심장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등으로 멈춘 심장을 소생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으로 응급헬기 운항이 불가능하여 여객선을 이용하여 후송 중 숨졌습니다. 울릉도라는 도서벽지가 아니었다면 고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살다간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에게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나이 드신 연로한 부모님,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있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남은 유족이 아버지와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에서 공무상 순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9.8.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탄원 연명서

경상북도 울릉도 저동초등학교 학교 근무 중 2019.8.6. 심정지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태관 선생님의 공무상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조합원이 서명하시어 8월 23일까지 경북교육노조 (팩스 054-805-3989)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

연번	소 속	성 명	주 소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